

지역 소식통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전문가 12명을 위원으로, 한국부동산원 평가사 3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주택가격(안)의 적정성과 비교표준주택 산정 및 인공 개별주택가격 균형유지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날 결정한 개별주택 대상은 23,565호로, 변동률은 전년 대비 0.12% 상승했으며, 토지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어 포함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공고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하면 문화의 날’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4일 ‘청하면으로 찾아가는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문화의 날’은 시민 소통 열린 대화의 날에 청하면에서 요청한 것으로, 문화사각지대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또, 본격적인 농번기 시작에 앞서 청년 농사를 기원하고, 주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다.

특히 이날 청하면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슴을 울리는 풍물패 공연과 버스킹 공연으로 봄날의 정취 속에서 지역 주민들은 휴식과 편안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 플리마켓, 청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먹거리 장터, 花(백일홍) 심기 체험 등을 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행사를 마쳤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번기에 앞서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 먹거리장터를 통해 휴식과 여유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일상에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본격화

설립심의위원회 최종 ‘적합’ 결정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완주군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추진해 온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최종 심의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설립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늘어나는 군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해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3일에는 공단설립에 대한 최종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민간전문가, 군의원, 관계공무원 등 8인으로 구성된 설립심의회는 지방공기업 평가위원의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협의 등 그동안의 사전절차 이행 결과를 검토했다.

공단 설립안에 대한 적정성, 경제성, 공공성 등 종합심사가 이뤄졌고,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최종 ‘적합’한 것으로 결정됐다.

설립심의회에서 공단 설립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상의 모든 심의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추후 조례

제정, 임직원 채용 등 본격적인 설립 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전북에서 3번째로 설립될 예정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하루 빨리 지역에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종 출범까지 관련 준비와 행정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설장사시설 △공영마을버스 △이서혁신 공영주차장 △종량제봉투 △고산자연휴양림 등 총 5개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시설공단 대상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분석한 후, 추가적인 업무이관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완주군과 함께 돌봄’ 사업 시작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초록우산 전북본부 ‘완주군과 함께 돌봄’ 설명회

가사, 간호, 정서적 지원 등 책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지원 목적

완주군(군수 윤희태)과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가 가족돌봄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완주군과 함께돌봄’ 지원에 나선다.

완주군은 지난 23일 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완주군과 함께 돌봄’ 사업 시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의 이해와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해 각 읍면의 맞춤형복지팀, 드림스타팀, 아동보호팀,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들의 사례관리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완주군과 함께 돌봄은 가족중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어른이 해야 할 가사나 간호, 수발, 정서적 지원 등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들은 기한이 없는 돌봄 책임을 지고 있으며, 돌봄과 생계, 진로 등의 여러 문제가 겹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주군은 다음주부터 각 읍면과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들을 발굴 할 예정이다. 자격은 가정에서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만7~18세 아동으로 중위소득 120%내 가정이 기준이다, 그밖에도 가정상황에 따라 대상자격과 지원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은 “협력사업을 통해 돌봄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의 아동청소년들에게 항상 관심과 가져주는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은 내달초 완주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발굴된 완주군 대상자들을 위해 1년 동안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지원금, 공부방 지원, 외부지원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후원자 발굴, 지원법 관련 캠페인 등의 옹호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가 ‘2024년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터 참가자인 농업인, 소상공인 등 50여팀을 대상으로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지평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사전간담회

김제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서 성공 추진 도모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4년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터 참가자인 농업인, 소상공인 등 50여팀을 대상으로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 주요 내용은 먹거리 위생 교육, 농특산물 할인행사, 김제사랑카드 할인 이벤트, 가격 정할 때 교육 등으로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개최를 목표로 진행됐다.

‘2024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은 기존

축제 이미지를 벗어난 새로운 첫 시도로 시민과 관광객, 음악마니아층에게 새로운 이미지와 관광, 음악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은 동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의 첫 시도”라며 “축제장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김제시의 안전한 농특산물과 저렴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6월 21일까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취약시설 8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에는 공무원과 민간예찰단, 건축·토목·소방·전기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인 경로당, 도서관, 교량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균열, 파손 유동등, 변형 및 누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은 소방서·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집중안전점검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해 24일, 시청에서 민간예찰단과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집중안전점검 활동계획과 홍보 및 예방, 다중집합 안전위험지역 예찰활동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시는 민간예찰단과 함께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찬준 부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민간예찰 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김제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한마당대회’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1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한마당대회’가 성료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됐으며 공인 품새, 경연, 태권벨리지 등의 종

목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지도자 및 대회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인들이 참가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특히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음에도 질서정연하게 안전사고 및 부상자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